



## 미 증시, 파월 의장 발언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며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7 일(화) 미국 증시는 파월의장 발언을 앞두고 강한 고용지표에 긴축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혼조세 출발했으나, 임금상승률 완화와 디스인플레이션등을 재차 언급했다는 점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 +0.78%, S&P500 +1.29%, 나스닥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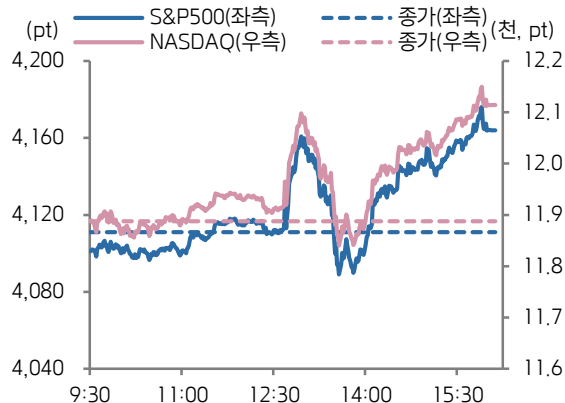
파월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강한 고용지표에도 디스인플레이션 판단을 유지한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는 올해 달성하기는 힘들고 내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1 월 고용보고서가 유례없는 타이트함을 보여주며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 1 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고용보고서로 인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 또한 "지난 FOMC 에서 언급한대로 디스인플레이션 초입 단계이지만,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선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일정 기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이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를 5.4%까지 인상해야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

터키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지진으로 인해 마비되면서 원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터키 제이한 지역의 석유 수출 터미널은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 원유를 수출하는 중요 통로로 일일 100 만배럴을 수출하고 있으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 한편 사우디 아람코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근거로 아시아 원유 수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며 원유 수급 불균형 우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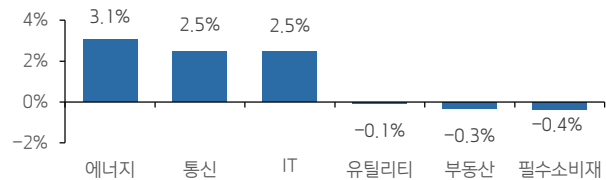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3.1%), 통신(+2.5%), IT(+2.5%) 업종은 강세, 필수소비재(-0.4%), 부동산(-0.3%), 유틸리티(-0.1%) 업종은 약세. 알파벳(4.61%)의 AI 챗봇 바드(Bard) 출시 발표에 이어, 바이두(12.3%) 역시 3 월까지 AI 챗봇 '어니봇' 출시를 발표하며 급등, IT 섹터의 AI 기술 경쟁 심화 예고.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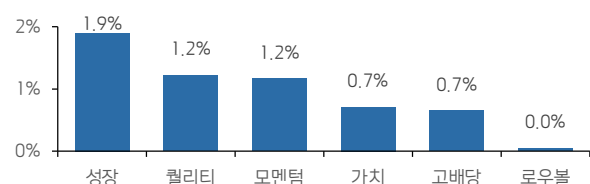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51.71	+0.55%	USD/KRW	1,255.84	+0.2%
코스피 200	320.55	+0.54%	달러 지수	103.33	-0.28%
코스닥	772.79	+1.51%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085.28	+2.3%	USD/CNH	6.78	+0%
S&P500	4,164.00	+1.29%	USD/JPY	131.10	+0.02%
NASDAQ	12,113.79	+1.9%	채권시장		
다우	34,156.69	+0.78%	국고채 3년	3.300	+0.3bp
VIX	18.66	-3.96%	국고채 10년	3.282	-1.3bp
러셀 2000	1,972.61	+0.76%	미국 국채 2년	4.464	-0.8bp
필라. 반도체	3,124.15	+3.12%	미국 국채 10년	3.674	+3.4bp
다우 운송	15,489.82	+0.82%	미국 국채 30년	3.713	+3.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09.31	+0.09%	WTI	77.47	+4.53%
MSCI 전세계 지수	648.93	-1.12%	브렌트유	84.02	+3.74%
MSCI DM 지수	2,793.59	-0.96%	금	1889	+0.51%
MSCI EM 지수	1,014.49	-2.33%	은	22.25	+0.06%
MSCI 한국 ETF	62.75	+1.88%	구리	407.1	+0.8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 및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고려아연, 풍산, 카카오뱅크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3. 전일 급등한 2차 전지, AI, GPT 테마 관련주들의 장중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의 장 증반 급락 이후 급격한 반등세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은 1) 파월 의장 역시 1월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 단기 전망 수정을 고민하고 있으나, 중기적인 전망은 기존대로 유지했다는 점, 2) 향후에도 중립 이상의 증시 환경이 이어지겠으나 시장과 연준 모두 최소 3월 FOMC 까지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수 상단이 유의미하게 열리기 어려운 만큼, 개별 업종 및 종목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점임.

전일 파월 의장에 앞서 발언이 있었던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1월 고용 수치는 놀라운 결과인 만큼 자신의 금리 경로를 하향조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본인이 제시한 최종금리 5.4%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함.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준이 지금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성을 역설한 상황. 이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1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고무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연내 긴축 기조 지속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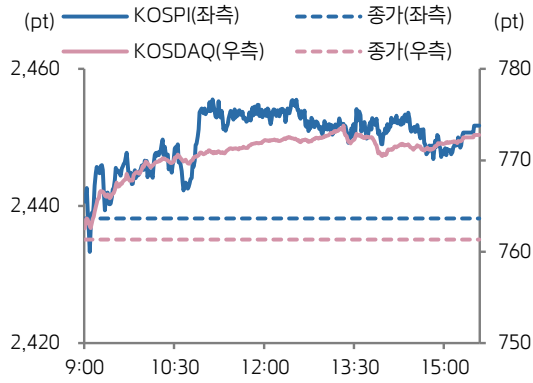
파월 의장 역시 노동시장이 이례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을 1월 고용 지표가 보여줬으며, 지난주 FOMC 에서 이야기한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되긴 했으나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하지만 파월 의장이 강력한 고용시장은 좋은 일인 것 하나, 높았던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장중 시장이 반등에 나섰던 것도 이 지점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 중심으로한 고용시장의 호조세는 제조업 경기 둔화, 누적된 긴축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주식시장이 베풀었던 것으로 판단.

물론 이제는 오판으로 증명됐던 '21년 "일시적 인플레이션" 판단처럼, 이번에 사용한 "디스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단순히 시장에 희망고문만 안겨줄 가능성이 있긴 함. 그렇지만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 미국 헤드라인 CPI(YoY)가 1Q 5.6%, 2Q 3.8%, 3Q 3.1%, 4Q 2.9%로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 시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임. 결국 당분간 매크로 지표에 따라 수시로 분위기가 변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매크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형주들의 추가 상단이 제약될 수 있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1월 미국 고용 서프 여진, 환율 상승 부담에도, 중대형 및 중소형주를 중심으로한 외국인의 순매수 속 개별 테마 장세가 전개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1.5%). 금일에도 파월의장 발언을 소화하며 반등에 성공한 미국 증시 효과, 고려아연, 풍산, 카카오뱅크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소화하면서 견조한 추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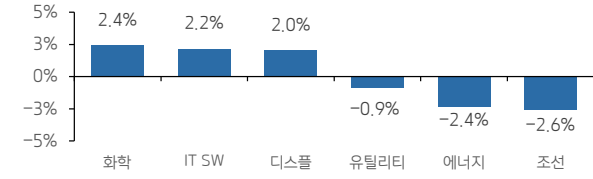
한편 미국 증시에서 AI 및 GPT 이슈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4.2%), 엔디비아(+5.1%) 등 테크 및 반도체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국내 증시에서는 전일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내 관련 주들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또한 개별 이슈로 인해 전일 장중 급등세를 연출한 2차전지, 엔터 관련주들의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에 유의.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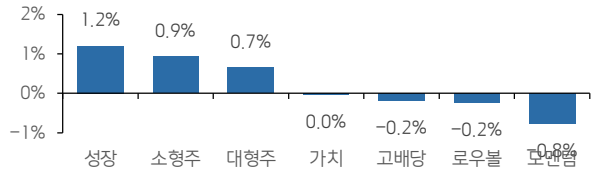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